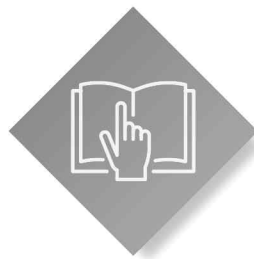


R&I TRENDS

EU R&I 주간 브리핑

2025.02.26



Contents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폴란드 의장국, 독립적인 ERC와 FP10 프로그램에 대한 바르샤바 선언문 초안 발표(2.20)
- ② 집행위, Erasmus+ 강화 및 추가 자금 확보 계획 발표(2.21)
- ③ 유럽, 방위 및 보안에 대한 벤처캐피털 투자 기록 갱신(2.18)
- ④ 호라이즌 유럽 Twinning 프로그램, 가장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2.25)
- ⑤ 유럽혁신위원회(EIC), 새로운 이니셔티브 통해 우수성에서 혁신으로의 전환 기회 제공(2.24)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HE 클러스터 6 워크프로그램 초안, 2025년 식품 및 환경 연구 예산 삭감 예정(2.20)
- ② 집행위 HE 클러스터5 워크프로그램, 기후·에너지·모빌리티 연구 간소화 계획 수립중(2.24)
- ③ 집행위 연구 결과 ... 여성 연구자가 고위직에 진출하는 데 여전히 큰 장벽 존재(2.20)
- ④ 집행위, EU-인도 과학기술 협정 평가 보고서 발간(2.25)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유럽 식품의 지구 자원 소모를 막는 혁신 프로젝트
- ② 기후 변화 완화 시나리오의 혁신적인 변화 추적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1] 폴란드 의장국, 독립적인 ERC와 FP10 프로그램에 대한 바르샤바 선언문 초안 발표(2.20)

- 폴란드 의장국은 바르샤바 선언문 초안에서 유럽연구위원회(ERC)와 유럽혁신위원회(EIC)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역할을 확대할 것을 요구
 - 폴란드 의장국은 3월 10~11일 진행되는 비공식 이사회 회의를 앞두고 바르샤바 선언문 초안을 작성하여 의견수렴을 위해 회원국 연구부에 보냄
 - EIC 워크프로그램은 회원국과 협력하여 집행위가 초안을 작성하지만, ERC 모델처럼 과학위원회가 보조금 할당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
 - 폴란드 의장국은 선언문 초안에서 호라이즌 유럽과 호라이즌 2020이 글로벌 R&I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음을 강조했으며 다년 연구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 유지의 필요성을 강조
 - 집행위에 회원국과 협력하여 기존 독립적 프로그램 전통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FP10 초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 바르샤바 선언이 초안 단계에 있기 때문에 회원국이 이를 승인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는 불분명하나 연구 이해관계자들은 장관들에게 바르샤바 선언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촉구하고 있음
 - 유럽대학협회 정책분석가 Kozirog는 두 기관이 FP10을 독립 프로그램으로 보존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줬으므로 집행위가 현재의 접근 방식을 재고할 것을 제안
 - 연구중심대학협회 Guild 연구혁신정책 책임자 Chicot는 MSCA도 확대 대상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
 - 젊은 유럽 연구대학 네트워크의 사무총장 Gomez Recio는 혁신적 과학 및 사회적 문제 해결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을 강조

- 초안은 ERC와 EIC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언급하며 FP10의 예산이 다른 연구혁신 프로그램의 비용으로 충당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유럽의회 산업연구에너지위원회(ITRE)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ERC와 EIC 모두에 대한 예산이 증가한 독립형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지지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
 - 선언문 초안은 FP10 예산과 관련해 '적절한 수준'을 확보할 것을 주장 하지만 구체적 금액은 제시하지 않음. 그러나 미래 R&I 관련 신규 지원 기금이 FP10 예산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
- 또한 FP10이 유럽 내 연구 격차를 줄이고, 사회 및 환경 기술 개발 및 시민 안보 연구를 포함한 특정 분야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
 - 초안은 FP10에서 유럽단일연구공간(ERA) 내 혁신 격차 해소와 R&I 시스템 발전이 더딘 회원국을 지원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사회 및 환경 기술, 시민 안보 연구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
 - 연구혁신 프로그램이 단순히 경제적 경쟁력을 넘어 민주주의 보호, 학문적 자유, 사회 복지 시스템 강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european-research-council/research-ministers-urged-defend-erc-independence-and-fp10>

2] 집행위, Erasmus+ 강화 및 추가 자금 확보 계획 발표(2.21)

- 유럽 집행위원회는 Erasmus+ 프로그램과 유럽 대학 동맹을 강화할 계획
 - 사람·스킬·준비 담당 부집행위원장 민자투는 지난 2월 20일 유럽의회 교육위원회에서 Erasmus+와 EU 학업 모빌리티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대학의 국경 간 연합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힘
 - 민자투는 예산 증액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Erasmus+ 프로그램의 기금을 다른 기금과 연계해 활용하는 것도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
 -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유럽 청년의 15%만이 혜택을 받고 있어 모든 학생에게 모빌리티를 제공하려면 예산 대폭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
 - 유럽 대학 동맹 이니셔티브도 현재는 프로젝트 기반으로 한시적 지원을 받고 있음
- 민자투는 Erasmus+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대학 동맹을 강화하려는 계획을 설명
 - 민자투는 Erasmus+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EU 결속기금과 각국의 국가 기금과 연계를 추진하고자 함
 - 미국, 중국, 인도와 경쟁 가능한 강력한 동맹을 구축하고자 하고, 농촌 지역과 취약 계층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더 많은 취약 계층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
 - 현재 65개 동맹 외에 추가 동맹이 없을 것이라 암시했지만 이미 동맹에 참여하고 있는 570개 이상의 기관에 추가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고 언급
 - 민자투는 동맹의 법적 지위 확립, 새로운 투자 경로 모색, 재정 자원 다양화, 연구혁신 및 모빌리티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연합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민자투 부집행위원장은 2027년까지 동맹의 투자 계획과 법적 지위 확립을 위해 회원국과 협력할 것을 밝혔으며, 집행위원들이 Erasmus+를 “유럽 정체성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고 있고 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함
- 2028년부터 시작되는 차기 EU 예산에서 Erasmus+와 대학 동맹의 예산 배정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음
- 집행위는 또한 STEM 졸업생 부족 문제를 해결을 위해 행동 계획을 발표 예정
 - 집행위는 또한 3월 5일 발표 예정인 '기술 연합 패키지(Union of Skills package)'를 위해 산업계 포함 자금원 결합을 추진 중. 패키지에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위한 행동 계획이 포함될 것
 - STEM 졸업생 부족 현상이 심각하며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
 - 2024년 말 새 집행위원회 출범 이후 임기를 시작한 민자투 부집행위원장은 교육이 자신의 핵심 업무로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universities/2025/2/Commission-planning-stronger-Erasmus--and-university-alliances.html
----	---

③ 유럽, 방위 및 보안에 대한 벤처캐피탈 투자 기록 갱신(2.18)

-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딥테크 방위, 보안 및 회복탄력성 기업에 대한 벤처 자금이 6년만에 5배 증가
 - Dealroom과 NATO Innovation Fund(NIF)의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의 딥테크 방위, 보안 및 회복탄력성 기업에 대한 벤처 캐피탈 자금이 지난 6년 동안 거의 5배 증가하여 2024년에는 52억 달러를 기록
 - 지난 2년 동안 전체 벤처 캐피탈 시장이 45% 감소한 반면, 방위, 보안 및 회복탄력성 부문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여 30% 상승
 - 동 보고서는 에너지 보안, 핵심 인프라 보호, 공급망 회복탄력성 및 보건 위기 대비를 포함한 광범위한 투자를 다루고 있으나, 대부분의 성장은 방위 과제를 해결하는 신생 기업에서 비롯됨
 - 예를 들어, 인지, 이해 및 의사결정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은 작년에 거의 두 배로 증가하여 10억 달러에 이르렀으며, 드론, 위성 이미징 및 인공지능과 같은 혁신에 대한 관심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
 - 자금이 지원되는 기술은 대부분 민간 및 방위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점점 더 좋은 사업 기회로 여겨지고 있음
 - NIF의 최고 커뮤니케이션 및 마케팅 책임자인 Amalia Kontesi는 “유럽의 기술적 우위와 주권을 유지하는 것이 이 지역의 안정성, 안보, 그리고 궁극적으로 번영에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라고 말함
 - Kontesi는 “엄청나게 혁신적인 연구기반 솔루션은 제조, 공급망 연속성, 우주 접근성과 같은 분야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유럽은 이를 깨달았고, 실제로 자금 조달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라고 덧붙임
- 특히, AI 및 컴퓨팅 분야의 유럽 스타트업이 2024년에 18억 달러로 가장 많은 자금을 받았으며, 이를 생명공학, 인간향상, 에너지 및 추진, 우주 분야가 뒤따름
 - 하지만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은 여전히 AI 반도체와 프로세서에서 뒤처져 있으며, 지난 2년 동안 이 분야에 대한 글로벌 벤처 캐피탈 자금 조달은 6%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45%에 달함

- 더불어 유럽은 발사체와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여러 다른 분야에서도 뒤처져 있음
-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뮌헨은 방위, 보안 및 회복탄력성 분야에서 벤처 캐피털 자금 조달의 주요 허브로 부상하여 2024년에 총 9억 9,600만 달러를 기록
 - 지난 5년 동안 옥스퍼드는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했으며, 그 뒤를 파리, 뮌헨, 런던, 케임브리지가 이음
 - Kontesi는 이러한 도시가 모두 강력한 연구 센터와 더 성숙한 자금 조달 시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
- NIF는 자본 접근성이 낮은 유럽의 다른 지역에서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 이에 따라 2022년에 개시된 10억 유로 이니셔티브는 딥테크 스타트업 뿐만 아니라 이중용도 기술에 초점을 맞춘 벤처 캐피털 펀드에도 투자
 - Kontesi는 “우리는 북유럽, 중동부 유럽, 지중해 등이 이러한 솔루션에 투자하고 지역 기업가를 충분한 자본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언급
 - NIF는 2024년 6월에 첫 투자를 발표한 이후 남부 유럽과 발트해에 첫 펀트를 투자, 한편, 영국의 양자 스타트업 Aquark Technologies는 이전 NATO의 북대서양 방위 가속기(DIANA)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은 후 NIF로부터 직접 투자를 받은 최초의 회사가 됨
 - NIF는 혁신가와 다른 기금을 지원함으로써 방위, 보안 및 회복탄력성이 유럽의 미래에 정말 중요하며, 내년이 아니라 20년, 30년, 40년을 위해 투자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자 함
- 유럽투자은행(EIB)도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EIB는 지원을 강화하고, 방위 부문에 투자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달라는 산업계의 요구에 대응하여 대출 규칙을 조정하고 방위 투자를 늘려 대응
 - 지난해 NIF와 EIB는 방위 및 보안 부문에서 스타트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start-ups/europe-sees-record-vc-investment-defence-and-security
----	---

4 호라이즌 유럽 Twinning 프로그램, 가장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2.25)

- Twinning 프로그램 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한 Widening 국가들이 가장 적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호라이즌 유럽의 Twinning 보조금은 연구혁신 성과가 뒤처진 국가(Widening 국가)의 연구기관을 우수 파트너와 연결하여 EU 펀딩 확보와 연구 역량 강화를 지원
 - 포르투갈, 그리스, 키프로스 등 남부 Widening 국가는 EU 연구 프로그램에서 비교적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경향이 있음
 - 그리스는 지금까지 호라이즌 유럽에서 약 17억 유로를 확보했으며 EU 회원국 중 7위를 차지했고, 포르투갈은 약 10억 유로로 12위, 키프로스는 3억 200만 유로로 17위를 차지
 - 중부 및 동부 유럽에서도 일부 예외적 성과가 나타났는데, 에스토니아는 호라이즌 유럽에서 2억 5,800만 유로로 19위를 차지함
 - 이러한 국가들은 Twinning 제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에스토니아의 타르투대학은 지금까지 실적이 가장 좋은 기관으로 총 800만 유로 상당의 11개 프로젝트를 확보함
 - 한편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각각 2,000만 유로의 보조금을 받아 가장 실적이 좋은 Widening 국가로 기록됨
 - 이와 함께 키프로스대학, 그리스 FORTH 연구재단, 리스본 NOVA 대학도 각각 300만 유로 이상을 확보
 - 이러한 성과는 Twinning 보조금이 향후 호라이즌 유럽 자금 조달에서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
- Twinning 지원에 있어 불균형이 나타나며, 호라이즌 유럽에서 하위권에 위치한 국가들이 낮은 규모의 보조금을 수혜받음
 - 그러나 Twinning 지원에 있어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불가리아는 34,000 유로 상당의 Twinning 보조금을 단 1건만 보유하며, 크로아티아는 총 200만 유로만 확보

- 폴란드는 규모 대비 낮은 지원금을 수혜받는데 현재까지 Twinning에서 1,100만 유로 미만을 확보함
- Twinning 보조금이 해당 국가들이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참여로 이어지는 성과가 나타나나, Widening 지원책이 연구 활동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주장
 - 2023년 Alliance4Life 파트너십 보고서에 따르면 Twinning이 호라이즌 유럽 프로젝트 참여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보고서는 Widening 국가 지원 계획이 연구 활동보다 네트워킹, 출장, 프로젝트 보고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
 - 2025년 2월 기준 Twinning 계획은 두 차례의 공모(2021, 2023년)에서 약 600개 기관에 219개 보조금을 지급함. 독일이 최대 수혜국(66개 기관, 2,800만 유로)이며 프라운호퍼와 막스플랑크연구소가 주요 연구 리더로 선두를 달리고 있음
 - 차기 공모는 2026년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widening-or-not-twinning-schemes-winners-and-losers>

5 유럽혁신위원회(EIC), 새로운 이니셔티브 통해 우수성에서 혁신으로의 전환 기회 제공(2.24)

- 유럽혁신위원회(EIC)의 새로운 이니셔티브인 InnoNext는 기업에 우수성 인증(Seal of Excellence)을 수여하여 혁신 추진 기회 제공
 - EIC 생태계의 InnoNext 이니셔티브를 통해 우수성 인증(Seal of Excellence)을 수여 받은 기업은 서로 협력하여 영향력 있는 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됨
 - 우수성 인증은 수준 높은 연구와 혁신의 상징이며, 우수성 인증 기업은 잠재력이 높은 혁신 기업으로 인정받음
 - InnoNext는 3~6개월 인턴십을 통해 최고 수준의 연구 인재를 영입하여 기술을 확장하고 R&D를 개선하며 상용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transforming-recognized-excellence-real-world-innovation-2025-02-24_en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1 HE 클러스터 6 워크프로그램 초안, 2025년 식품 및 환경 연구 예산 삭감 예정(2.20)

- 호라이즌 유럽 클러스터6 2025 워크프로그램 초안 수정안에 따르면 식품 및 환경 연구 예산 1억 4,050만 유로 삭감 예정
 - 워크프로그램 2월 초안은 2025년 클러스터 6에 총 9억 6,770만 유로의 예산을 배정할 계획을 설명. 2024년 10월에 작성된 초안에서는 11억 유로로 예상했으나 2025년 예산 조정으로 감소
 - 클러스터 6 워크프로그램은 지속 가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 시스템 구축, 해양 건강 보호, 친환경 커뮤니티 개발 관련 콜에 3억 5,250만 유로를 배정. 기존 초안의 4억 2,350만 유로에서 감소한 수치
 - 생물다양성 보호 및 복원, 순환 경제 촉진, 오염 감소를 위한 콜에 3억 4,500만 유로를 배정. 기존 초안의 4억 1,000만 유로에서 축소
 - 관련 2단계 공모에는 각각 7,400만 유로와 4,800만 유로를 지원받으며, 10월 초안에서는 세부 내용이 제공되지 않음
 - 유럽 그린딜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 솔루션과 민첩한 거버넌스 모델 개발 프로젝트에는 1억 2,940만 유로를 배정. 이는 기존 초안의 1억 1,990만 유로에서 증가
 - 모든 공고는 2025년 5월 6일 개시 예정
 - 유출된 프로그램 위원회 회의 프레젠테이션에 따르면 클러스터 6에는 6개의 공동 자금 지원 파트너십도 포함될 예정
 - 2025년 유럽 생물다양성 파트너십 Biodiversa+에 따른 공동 연구 제안 콜은 생태계 기능 복원에 초점을 맞추며 2026년에는 미래 생태계 연구에 집중할 것
 - Water4all 파트너십은 2025년 '물과 건강'을 주제로 3,200만 유로를 할당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leaked-horizon-plans-point-eu1405m-cut-food-and-environment-calls>

2 집행위 HE 클러스터5 워크프로그램, 기후·에너지·모빌리티 연구 간소화 계획(2.24)

- 호라이즌 유럽 클러스터 5에 대한 [2026~2027 워크프로그램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기후, 에너지, 모빌리티 연구 간소화 추진 예정
 - 문서에 따르면 2026~2027년 최종 워크프로그램(Cluster 5)은 보다 간소하고 유연한 공고 형태로 변화할 것
 -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의 Draghi 및 Heitor 보고서의 권고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보다 전략적이고 선택적인 주제를 다룰 예정
- 문서에 따르면 클러스터 5의 연구 주제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공고 수는 줄이고 각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은 확대될 예정
 - 집행위의 유럽 산업 탈탄소화를 위한 청정산업계획(Clean Industrial Deal) 파일럿 공고를 제안. 이는 유럽의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R&D 투자 활성화 및 대규모 혁신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목표로 함
 - 파일럿 공고의 일환으로 집행위는 호라이즌 유럽과 혁신기금의 연계를 구축하고자 함
 - 전반적으로 클러스터 5는 기존과 동일한 6개 도달목표(Destination)을 유지하며 기후, 에너지, 모빌리티 연구혁신을 다룰 것이나, 새로운 계획은 전략적 우선순위에 집중하여 공고 수를 감소하고 개별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을 증액할 예정
- 동 워크프로그램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 기후 완화 및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 과학 발전
 - 지속 가능한 배터리 시스템을 위한 기술 성숙
 - 재생 가능 에너지 효율성 향상 및 지식 공유 확대
 -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선
 - 건물의 에너지 수요 감소
 - 무배출 운송 및 모빌리티 시스템 도입 및 접근성 확대
 - 친환경 항공 혁신

- 호라이즌 유럽의 기후 적응 미션은 2026년 1억 2,200만 유로, 2027년 1억 2,400만 유로의 예산으로 4가지 주요 활동을 지원
 - 호라이즌 유럽의 기후 연구 중 일부는 기후 적응 미션을 통해 자금이 지원되며, 2026년 1억 2,200만 유로, 2027년 1억 2,400만 유로를 연속성, 연구 결과 배포, 스케일업 및 시너지 등에 배정 예정
 - 연속성 조치에 따라 국가 기후 적응 허브, 구현 플랫폼, 기후 서비스 등 기존 미션 플랫폼을 지원할 계획
 - 연구 결과의 배포를 지원하기 위해 국경 간 기후 회복력을 위한 혁신 및 시범 사업에 자금을 지원
 - 스케일업을 위해 기후 변화로 인한 건강 위험에 대한 혁신 솔루션을 조달하고 유럽혁신위원회(EIC)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스타트업을 지원할 것
 - 시너지 효과에 대한 주제로는 회복력 있는 도시 폐수 시스템, 기후 대응형 지역 의사결정 지원 지식 기반 구축, 재해 위험 관리와 기후 적응 간 격차 해소 등이 있음
 - 추가 검토 중인 주제로는 식량 시스템 시범 프로그램과 AI 기반 기후 적응 솔루션이 있음
 - 2026~2027년 워크프로그램은 2025년 마지막 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며, 집행위는 동 문서에 대해 연구혁신 커뮤니티의 이해관계자와 협의 중이고, 향후 세부 내용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horizon-europe/commission-plans-step-change-simplicity-climate-research>

③ 집행위 연구 결과 ... 여성 연구자가 고위직에 진출하는 데 여전히 큰 장벽 존재(2.20)

- 집행위원회 정책 전문가들에 따르면 여성의 고위 연구직 진출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없애는 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함
 - 유럽 R&I 분야의 성평등 현황을 분석한 집행위의 She Figures 보고서는 현재 여성은 초기 연구자 중 47%를 차지하지만 고위직(정교수 등)은 여전히 30%에 불과하다는 성별 격차를 강조
 - 유럽대학협회(EUA) R&I 정책분석가 Kozirog는 보고서가 연구 분야의 성평등에 있어 "중대한 격차"를 강조한다고 말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이 학계에서 고위직으로 오르는 데 방해가 되는 제도적 장벽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제도적 장벽으로는 법적 지원 부족,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 지속적인 성 편견, 리더십 역할을 추구하는 데 자신감 부족 등이 포함됨
 - 연구중심대학연합 사무총장 Palmowski는 트럼프가 대통령직에 복귀한 이후 미국에서 평등, 다양성, 포용성이 "심각한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보고서가 시의적절하다고 말함
 - Palmowski와 Kozirog는 연구에서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 정책 입안자와 자금 지원자의 참여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학업 경력 구조를 지원하는 복합적인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연구에서의 불안정한 고용은 특히 여성 및 소수자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보고서는 여성과 남성 연구자의 동등한 비율인 19%가 불안정한 고용(최대 3년의 기간제 계약으로 정의)에 직면해 있다고 밝히며 고용 불안정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평가
 - 그러나 유럽 박사과정 및 주니어 연구원 협의회 회장 Saugmann은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언급
 -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EU 회원국의 성평등 지수를 평가한 결과 스웨덴이 1위를 차지한(88%) 반면 룩셈부르크(60%)가 독일(63%)을 뒤이어 최하위로 나타남

- 헝가리 외트뵈시 로란드 대학 부교수이자 유럽 젊은 아카데미의 퇴임 의장 Solymosi는 헝가리를 포함한 일부 동유럽 국가들의 연구에 여성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했으며 ‘전통적 가족 모델’이 여성 연구자의 낮은 참여율에 기여한다고 말함
- Solymosi는 자녀가 있는 여성 연구원이 남성 동료나 자녀가 없는 여성보다 급여가 낮고 논문과 인용 횟수가 적어 경력 발전이 더딘 것으로 나타난 헝가리 설문조사를 인용
- **펀딩 기관과 리더십의 적극적인 개입, 롤모델 및 멘토링 프로그램,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이 변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Solymosi는 여성 연구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리더들의 적극적인 개입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제안
- 유럽과학기술대학그룹 Cesaer의 혁신 및 지속가능성 고문 Drogoul은 롤모델과 멘토링 프로그램의 도입과 연구 리더십의 다양성을 장려하는 정책의 시행을 제안
- Kozirog는 아일랜드가 여성 대학 총장 증가를 통해 성평등 개선의 성공 사례를 보여줌을 언급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universities/2025/2/-Systemic-barriers--block-gender-equality-in-research--experts-say.html?utm_medium=email&utm_source=rpMailing&utm_campaign=clvRpReNews_2025-02-20
----	---

4 집행위, EU-인도 과학기술 협정 평가 보고서 발간(2.25)

- 집행위는 2020~2025년 기간 동안의 EU와 인도의 과학기술 협정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보고서는 과학기술 협정이 주요 연구혁신 분야 협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 양측의 협력은 호라이즌 2020과 호라이즌 유럽에서 총 88개의 프로젝트에 인도가 참여하면서 발전해 옴
 - 주요 협력 분야로는 에너지, 보건, 물, 정보통신기술(ICT), 혁신 등이 있고, 공동 연구 이니셔티브는 스마트 그리드, 백신 개발, 폐수 처리 및 인공지능에 중점
 - 모빌리티와 인력 개발이 양측 협력의 핵심 축이며, 현재까지 600건 이상의 MSCA 보조금이 인도 연구자에게 지원되어 비EU 국가 중 MSCA 보조금을 최다 수혜 국가를 기록. 또한 비EU 국가 중 유럽 연구위원회 보조금 수혜 국가 상위 5위 안에 들며 EU-인도 간 학술 및 연구 교류의 강점을 보여줌
 - 2023년 2월 6일에 설립된 EU-인도 무역기술위원회(TTC)는 친환경 기술, 디지털 거버넌스, 무역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
- 보고서는 현재까지의 진전을 바탕으로 보다 명확한 예산 배분, TTC와의 원활한 협력,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를 권고함
 - EU-인도 과학기술 협정의 갱신(2025~2030년 갱신 예정)은 이러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진전을 보장하며 글로벌 이익을 위한 EU와 인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
 - 양측은 2025년 2월 27일 TTC 장관급 회의에서 성과를 보고하고 다음 기간의 성과에 대해 합의할 예정. 논의 중인 분야로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폐기물 재생 수소, 전기 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전기 자동차 충전 인프라 상호 운용성, 폐수 처리 등에 대한 공동 연구가 있음

- 2001년 '유럽 공동체와 인도 공화국 정부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협정'이 뉴델리에서 서명되어 2002년 발효되었으며 세 차례 갱신됨
- 2024년 9월 제14차 EU-인도 공동운영위원회에서 양측은 협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협정을 5년 더 갱신할 의사를 밝혔으며, 집행위가 발표한 평가 결과는 협정이 유용하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출처

http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news/all-research-and-innovation-news/evaluation-eu-india-science-technology-agreement-highlights-achievements-and-showcases-future-2025-02-25_en

3. EU 연구성과

① [성공사례] 유럽 식품의 지구 자원 소모를 막는 혁신 프로젝트

- EU 지원 CO-FRESH 프로젝트는 과일과 채소 산업을 더 큰 지속 가능성으로 이끄는 새로운 기술, 도구 및 통찰력을 개발
 - 유럽 농식품 가치 사슬은 가격 상승에서 기후변화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추세는 모든 가치 사슬 행위자들에게 어려운 일이 된다. 특히, 농부들은 낮은 마진, 지리적 위치 및 약한 협상력으로 제약을 받는다.”라고 스페인 CNRA의 CO-FRESH 프로젝트 코디네이터 Ines Echeverria는 말함
- CO-FRESH는 EU 전역의 광범위한 파트너 컨소시엄을 조율하여 유럽의 농식품 시스템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미래에 더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적응시키는 목표를 세움
 - CO-FRESH는 7가지 사례 연구에서 새로운 기술, 도구 및 통찰력을 개발하여 농식품 생산에 대한 새로운 체계적 접근 방식을 재설계하고 시범 운영했으며 이러한 혁신들이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목표로 함
 - 구체적으로 이 프로젝트는 과일 및 채소 가치사슬에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플라스틱 및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동시에 포장 샐러드와 같은 최소한으로 가공된 식품의 유통 기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함
 - "CO-FRESH의 성공은 F&V 가치 사슬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사슬에 있는 행위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다. 7가지 시범 사례는 혁신을 적용하는 방법의 살아있는 사례로 남아 있다." (Echeverría)

- CO-FRESH는 유럽의 과일 및 채소 가치 사슬에서 많은 파트너 간의 더 나은 협력을 가져왔고, 업계 전문가들이 모여 광범위한 지식과 아이디어를 활용하기 위해 일련의 회의를 개최
 - 이러한 워크숍을 통해 200개가 넘는 제안된 혁신의 잠재적 영향, 실행 가능성 및 혁신 수준이 논의되었고, 7개 시범 사례에 사용할 19개의 후보 목록이 선정됨
 - "공동 창작 방법론을 통해 7개 시범 사례 각각의 전체 공급망에서 대표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Echeverría)
 - 이러한 시범 사례는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페인에서 진행되었으며, 과일, 샐러드, 버섯, 콩과 식물 및 돼지고기를 생산하는 다양한 농장들을 대상으로 했음
- 동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구현한 혁신적인 접근법은 다음과 같음:
 - 관개를 최적화하여 소규모 농장의 물 소비를 줄이기 위해 지능형 사물 인터넷 시스템 사용
 - 현지 농작물을 이용, 가공 공적이 적은 식물성 식품 개발
 - 식품 포장에 퇴비화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임
- 프로젝트 팀은 과일 및 채소 공급망에서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그 생산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인증 제도와 짧은 가치 사슬을 따라 이해관계자를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거버넌스 도구를 개발
 - CO-FRESH는 유럽의 농식품 부문 전반에 걸쳐 연구 결과를 전파하기 위해 YouTube에서 볼 수 있는 20개 이상의 비디오를 제작했으며, 브뤼셀에서 열린 행사에서 최종 프로젝트 비디오를 선보임
 - 이 팀은 120개가 넘는 박람회, 컨퍼런스, 워크숍 및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했으며 다양한 분야의 농식품 이해관계자들에게 다가감
 - 이와 함께 이 프로젝트는 100개 이상의 기사, CO-FRESH 뉴스레터 및 단편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어짐
 -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여러 과학 컨퍼런스 및 회의에서도 발표되었으며, 현재 10개의 오픈 액세스 과학 논문들이 출판되었고 4개가 검토 중

- 시범 연구는 가장 성공적인 혁신을 계속 이행할 것이며, 그 중 일부는 이미 대규모 시장에서 실제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단계를 거치고 있음
 - 이 작업은 또한 농식품 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구축한 강력한 커뮤니티를 통해 계속될 것
 - CO-FRESH는 또한 집행위원회의 권위 있는 Innovation Radar Prize의 10번째 에디션에 참여하도록 초대됨
 - "자매 결연 프로젝트들(Ploutos, FAIRCHAIN, LOWINFOOD 및 FOODRUS)과의 네트워크 연결과 함께 의사 결정권자 및 공공 기관들이 여러 공동 이벤트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메시지, 학습 및 결론이 강화되었다. 이 협업은 CO-FRESH 파트너가 네트워크, 프로젝트 및 보급 이벤트 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Echeverría)

CO-FRESH 프로젝트

- 기간 : 2020.10.01. ~ 2024.03.31.
- 예산 : 약 7,531,707 50 유로 (EU 6,992,304.00 유로 지원)
- 주관 : CENTRO NACIONAL DE TECNOLOGIA Y SEGURIDAD ALIMENTARI (스페인)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innovation-helps-ensure-european-foods-dont-cost-earth>

2 기후 변화 완화 시나리오의 혁신적인 변화 추적

- '네이처 기후변화'에 게재된 새로운 연구는 유엔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보고서에 제시된 미래 배출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
 - EU 지원 NDC ASPECTS, IAM COMPACT 및 DIAMOND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IPCC가 지난 10년 동안 기록한 글로벌 에너지 및 사회 경제 시스템의 발전과 변화를 자세히 살펴봄
 - IPCC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기후 변화에 대한 정기적인 과학적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엔의 정부 간 기구로, 보고서는 기후 변화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완화 경로를 분석하여 국제 기후 정책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도움
- EU 지원 연구원들은 IPCC의 제5차 및 제6차 평가 보고서와 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C 높은 지구 온난화의 영향에 대한 특별 보고서에 제시된 시나리오를 비교하여 배출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기술 및 기타 요인을 평가
 - 분석 결과, 특정 기후 정책이 없는 기준 시나리오는 최근 보고서에서 지속적으로 CO2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저탄소 기술 비용 감소와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 감소를 포함한 여러 요인이 이러한 추세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에너지 및 산업 부문에서 화석 연료의 점유율이 감소
 - 지구 온난화를 1.5~2°C 미만으로 제한하는 완화 경로는 일반적으로 최근 시나리오에서 전기화 확대와 전력 생산에서 가변 재생 에너지원의 점유율 증가에 초점을 맞춤
 - 이것은 석탄, 원자력, 바이오에너지, 탄소 포집 및 저장에 대한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비용의 변화를 반영

- 부적절한 기후 조치로 인한 탄소 예산 감소에도 불구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 덕분에 완화 비용은 증가하지 않음
 - 연구 저자들은 "앞으로 시나리오 제작자는 정책의 관련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술, 정책 및 사회적 발전에 뒤처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결론 지음

IAM COMPACT 프로젝트

- 기간 : 2022.09.01. ~ 2025.08.31.
- 예산 : 약 4,461,325 75 유로 (EU 4,461,323.00 유로 지원)
- 주관 : ETHNICON METSOVION POLYTECHNION (그리스)

NDC ASPECTS 프로젝트

- 기간 : 2021.05.01. ~ 2024.09.30.
- 예산 : 약 4,999,375 00 유로 (EU 100% 지원)
- 주관 : WUPPERTAL INSTITUT FUR KLIMA, UMWELT, ENERGIE GGMBH (독일)

DIAMOND 프로젝트

- 기간 : 2022.12.01. ~ 2026.11.30.
- 예산 : 약 3,850,922 50 유로 (EU 100% 지원)
- 주관 : EREVNITIKO PANEPISTIMIAKO INSTITOUTO SYSTIMATON EPIKOINONION KAI YPOLOGISTON (그리스)

출처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57125-tracing-transformational-change-in-climate-change-mitigation-scenarios>